

# 김영록 전남지사의 '행정통합 침묵'...시·도 갈등 블랙홀되나

### 이용섭 광주시장 제안 후 구체적 표명無...갑작스런 제안에 당혹·정치적 부담

이용섭 광주시장이 던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화두로 연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들쭉거리고 있지만 정작 논의 당사자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이견섭 대변인 명의의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것 외에 김 지사가 이날까지 시·도 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이용섭 시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갑작스런 행정통합 제안에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특정 행사장에서 만난 이 시장이 "시·도 행정통합을 하면 어떻겠냐"고 스치듯 질문을 던졌을 뿐 공식적인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에 걸쳐 행정통합이 무산된 전

례가 있고, 정치권은 물론 시·도민, 단체 등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절차적 당위성을 배제하고 도지사 찬·반 여부를 공표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 시장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는 비판을 쏟아내 제기하는 일부 도민의 비판도 김 지사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자칫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설불리 언급했다가 소모적인 논쟁만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이 시장의 화두 선포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물론 시·도민들에게 이미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상 김 지사의 긴 침묵은 또 하나의 시·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행정통합 화두는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사용 문제 등 시·도 공동 현안을 모두 짊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어 어떤 형태든 김 지사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김 지사의 판단은 큰 틀에서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음이 대변인 입장문에서 나타난다.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는 광주·전남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뿌리로 공동 운명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시·도 의회 등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정승호기자

## '혁신도시 vs 세종시' 국비지원 격차 6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나주 등 전국 10곳에 조성한 혁신도시들이 세종시와 비교 시 국비예산 지원 분야에서 찬밥 취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투입된 국비예산은 7998억원인 반면 세종시는 이보다 6.3배 많은 5조 708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에 지원된 국비는 국립세종도서관 건립 등 5개 분야에 8429억원을 비롯해 세종시복지·행정시설 등 6곳 조성 1조7906억원, 세종교육청소년시설 등 5개 시설 조성에 4370억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지원 분야 585억원, 국가기관청사 7곳 조성 2502억원,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조성사업에 2조5345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 내역별로는 대통령기록관 건립(1094억원), 세종컨벤션센터 건립(797억원), 국립세종도서관 건립(1015억원), 국립 박물관단지 건립(4005억원), 국립세종수목원 조성(1518억원) 등에 국비 8429억원이 투입됐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경로복지관, 아트센터, 복합편의시설 건립 등이 포함된 행정복지시설 조성에는 국비 1조7096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는 진입도로 지원 외에는 이렇다 할 국비지원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 명목으로 지원된 국비는 부산, 대구, 나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혁신도시 10곳에 7080억원을 지원했다. 평균값으로 나누면 혁신도시 한 곳 당 708억원이다.

개별 혁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국비지원 사례는 경북혁신도시에 100억원을 지원해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유일했다.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에 들어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에는 200억원을 지원한 게 고작이다.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혁신도시 한 곳당 22억2000여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국비예산 지원 불균형에 대해 전남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가 행정복합수도를 표방한다지만 국비예산 지원 규모를 따져 봤을 때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전체 지원 예산보다 6배를 웃도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과 차별"이라며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혁신도시가 조성 취지에 맞게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비예산을 지원할 때 행정성과 지역 안배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동구, '관급공사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광주 동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노동자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발생을 우려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한시적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센터는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임대료 등 조기자금을 독려하고 ▲발주부서로부터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고시간 다발업체나 하도급공사에서 수차 체불이력 있는 사업장도 자체 선정해 관리하고 명절 전까지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 서구보건소, '하루 만보' 비대면 걷기 챌린지 운영

광주 서구 보건소가 비대면 걷기 챌린지 '하루 만보 걷기'를 운영한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주민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는 서구주민, 서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매일 1만보 이상을 걸어 누적 10만 걸음 이상 달성자 100명(선착순)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이 제공된다.

챌린지 달성 후 서구 주민임을 증명하는 사진(신분증 또는 명함)과 스마트폰 내 걸음수 통계화면을 캡처해 연락처와 함께 서구보건소 담당자에게 메일(younha@korea.kr)을 발송하면 된다.

## 남구, '인구 과밀화' 효덕동 분동·경계조정 추진

광주 남구는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구 과밀화 지역인 효덕동을 둘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구는 16일 "노대동과 효천2지구 등 신규 아파트 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인구 과밀화에 따른 민원 처리 대기 장기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고, 효덕동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효덕동에 대한 분동과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효덕동 분동 및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관내 인구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인구 과밀화 현상 때문이다. 또 효천2지구 내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구역이 효덕동과 송암동으로 나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 북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광주 북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한다.

북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36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5천만 원을 들여 석곡동, 건국동 등 농촌지역 주민 523세대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태양광 434개소, 태양열 88개소, 연료전지 1개소이다.

## 광산구, 쌍암공원서 '별밤 미술관' 개관

17일 광주 광산구가 지역예술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하는 비대면 전시관 '별밤 미술관'을 개관한다.

'별밤 미술관'은 광주 최초의 비대면 상설 전시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이 임시 휴관 중인 상황에서, 예술인 활동을 장려하고, 비대면 전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심 속 찾아가는 미술관이다.

광산구는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시민 생활공간 가까이에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미술관에서 매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별밤 미술관'은 밤에 열리는 야간 특화 전시관으로, 자연과 예술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형택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간담회를 했다. (사진=전남도 제공)

## 김영록 지사 "전남의 코로나 영웅들 감사합니다"

### 도시락 먹으며 애로사항 청취 전국 최초 10월부터 직접 운영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역학조사 지원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소통 간담회를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현장 업무가 바빠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청 정약용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전남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감염병 발생 시 분석과 정보 교류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현장·심층 역학조사와 기술을 128회 지원했으며,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진단 병원 등 25개소에서 43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응교육을 했다.

임시 검사시설과 생활치료센터 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 컨설팅을 했다.

김 지사는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방역활동에 매진해 준 전남의 코로나 영웅들에게 감사하다"

며 "지난 8월 순전을 비롯한 도내 집단 감염 확산 위기 때 발 빠르게 대처해 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므로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전국 최초로 10월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년 간 화산전남대병원에 위탁 운영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노단12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준엽 (390408 - 26659116)  
최 후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6길 16(교동리)

위 망 이준엽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9월 17일

공 고 인 : 이준생,이원준,이영애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새빨길 101,308동701호(신길동)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701(포산리)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2번길 5-2(하대원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9월 11일  
공 고 기 간 : 2020. 9. 17 ~ 2020. 11. 17

한국에너지재단  
Korea Energy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1577-000